

# 시민의 소중한 사유재산권 보호한다

## 전주시, 도시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신청·접수

전주시는 도시계획 결정 이후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시설 부지를 사들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기로 했다.

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매수청구 신청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건축물과 정착물도 포함된다.

매수청구된 미집행 시설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요건 충족여부를 검토, 매수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할 방침이다.

매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잔여지 보상이나 영업 손실 비용, 이주대책비 등 간접보상비는 제외된다.

생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절차를 적극 실시하고 매수청구 절차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들의 재산권



청암산 눈길을 걷다 5일, 든든한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눈 내린 군산의 '청암산 구슬머길'을 찾아 산행에 나서고 있다. (사진=군산시청 제공)

보호와 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수청구 신청은 전주시청 생

태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63-281-2615)로 신청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 편입 여부는 '토지

유규 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계획(lur&molit.go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 학생 성장 중심의 진로교육 역점

## 전북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5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중·고 진로 업무 담당자 교육지원청 진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 진로교육활성화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진로교육 예산으로 약 26억5000만원을 확보해 진로 교육 활동을 내실화한다.

올해는 학생 성장 중심의 진로교육에 역점을 두고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것과 더불어 진로설계의 과정과 진로선택의 방법 등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학생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상담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의 진로교육 주요 내용으로 학교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진로교육의 인프라 구축, 학교교육과정 연

계 진로교육, 학생 성장 중심 진로 설계로 정했다

진로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단 구성 운영과 지역별 진로교육협의체 구축 운영, 중·고등학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1교당 2천만 원을 지원해 진로교육 전용교실(커리어존)을 설치·운영한다.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직업' 과목을 3년 간 2단위 편성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인 '진로활동'을 초·중·고등학교는 3시간, 고등학교는 4시간을 확보해 운영하며, 진로집중학년학기제 선도학교 8교(초 2, 중 3, 고 3교)는 1교당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연계 진로직업 체험을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체합처 확보, 양질의 체험처와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관리 및 교내 체험 활동을 강조한다. 또한 농어촌 진로직업 체험 지원을 위해서는 진로 체험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소규모 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수업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교사들의 연구활동 지원과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초등 진로담당교사 집합연수와 중등 담임교사 진로상담 연수, 학교관리자 대상 진로교육 연수 등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2018 전북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와 진로교육 교사연구회를 운영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와 학교단위의 진로교육 내실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2018년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월 7일에 실시될 2018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 계획을 5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접수처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졸의 경우 시군 교육지원청(전주, 완주 제외)과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 중졸·고졸의 경우 도교육청 1층 행정자료실에서만 원서를 접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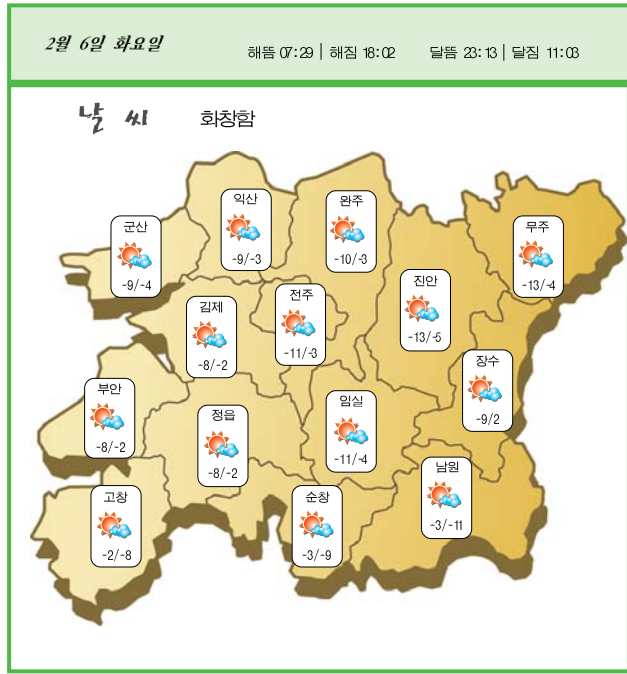
현장접수가 어려운 응시자는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kged.be.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 접수의 경우 1일 단축된 2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니 주의가 요구된다.

응시자들은 원서접수를 위하여 최종 학력증명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시험장소를 3월 21일, 합격자 발표는 5월 10일에 발표하니 응시자들은 해당 날짜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무주 소재 고교, 명문학교로 조성할 것”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OECD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을 지낸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이 지역교육 현안 해소와 발전을 위해 ‘장수교육현장 속으로’라는 주제로 5일 무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주 소재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겠습니다.”고 밝혔다.

이날 황호진 전 OECD 교육관은 무주군에서 학생, 교사 및 군민을 만나 무주군의 시급한 교육환경현안을 청취하고,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무주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무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과거 설천고등학교

같은 명문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인프라를 고려해 특성화(예: 태권도학교, 스키학교, 곤충체험학교 등)하고,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기숙형 고등학교지원사업과 연계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 올 수 있는 명문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교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무주군과 협의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만들고, 열정이 넘치는 교사들을 우선 배치해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인재육성사관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 통해 자신감과 꿈을 찾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전문선기자

## 올해 초등 148개교 안심 알리미서비스 운영

올해 전북도내 148개 초등학교에 안심 알리미서비스를 운영하며 총 6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5일 전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의 등하교 안전대책 일환으로 총 6억9000만원을 지원해 148개 초등학교에서 안심 알리미서비스를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등 1~3학년 등 저학년 사회배려계층 대상 학생을 우선 지원하며 등

하교 문자 알림, 비상경보 알림,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 위치 전송, 학교의 출입정보 등을 안내받게 된다.

서비스 가입 신청은 학교에서 개별 통신사(KKT, SKT, LG+)와 서비스 제공범위와 시설 유지 등을 검토해 계약하게 된다.

교문 등에 중계기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단말기(센서)를 제공해 중계기를 통과할 때 감지, 서비스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김민근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